



보도시점 2026. 5. 6.(수) 조간  
2026. 5. 5.(화) 12:00

배포 2026. 5. 4.(월)

##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은 의약품 찾기 쉬워진다 ‘약국 안내’ 서비스 개발 지원

- 환자 의약품 접근성 높이기 위해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정보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5월 6일(수)부터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플랫폼)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간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처방전을 받고도 주변 어느 약국에 해당 약이 있는지 알 수 없어, 여러 약국에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고 진료부터 조제까지의 과정을 원활하게 연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방되는 데이터는 최근 1년간 비대면진료 처방 이력이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약국별로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구매 또는 조제 여부에 관한 정보를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방식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구매나 조제 이력을 보유한 약국일수록 미보유 약국에 비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재고 보유 가능성이 높은 점에 착안한 조치이다.

\* 민간 플랫폼과 공공시스템을 자동으로 연계하는 공개 응용프로그램 연계 체계

데이터가 개방되면 각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자사 서비스 내에서 ‘조제 가능 약국 안내’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여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자는 처방받은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 중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바로 확인하고 방문할 수 있게 되어 조제 지연이나 조제 포기로 인한 치료 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 정보 개방 전·후 비교 】**

◆ 정보 개방 전

출근 후 감기 증상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던 직장인 A씨는 회사 근처 약국 5곳에 일일이 전화하여 처방받은 약이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해당 약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을 찾지 못하였다.  
결국 집 근처 약국에 전화하여 약이 있는지 확인한 A씨는 비대면 진료 후 7시간이 지나서야 처방 약을 수령·복용할 수 있었다.

◆ 정보 개방 후

A씨는 비대면진료 종료 후 플랫폼을 통해 ‘내 주변 조제 가능 약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 중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을 방문하여 즉시 약을 수령·복용할 수 있게 된다.

곽순헌 보건 의료정책관은 “이번 데이터 개방을 통해 비대면진료 이용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의 안착과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준혁 (044-202-2490)
		담당자	사무관	정아영 (044-202-249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개발부	책임자	부 장	서문민 (033-739-2270)
		담당자	팀 장	김재욱 (033-739-2271)

